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	
배포 일시	2022. 11. 7.(월)			
담당 부서	광역교통정책국 광역버스과	책임자	과 장	윤준상 (044-201-5065)
		담당자	사무관	이진수 (044-201-4603)
보도일시	2022년 11월 7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7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	

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… 광역버스 안전 경각심 높인다

- 7일 광역버스 안전관리 체계 점검회의서 입석대책 집중 점검 -

□ **국토교통부**(장관 원희룡) **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**(위원장 이성해, 이하 대광위)는 **광역버스 혼잡해소를 통한 안전확보**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**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**을 모색하기 위한 **"광역버스 안전관리체계 점검회의"**를 11월 7일(월) 오후 서울 철도사법경찰대 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□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당일 오전에 개최된 **대통령님 주재 "국가안전 시스템 점검회의"**에서 논의되었던 광역버스 혼잡해소를 위한 인파관리 방안 등 회의결과를 공유하고,

○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광역버스 이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**광역버스 혼잡해소**를 위해 수도권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**광역버스 입석대책의 추진상황 점검** 및 **지자체, 운송업계의 안전 경각심**을 **고취**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□ 먼저, 대광위는 점검회의에 참석한 수도권 지자체, 운송업계에 광역버스 승객 밀집을 방지하기 위한 **공급확대를 중점 추진**하고 **사전 안전점검 체계 구축**을 통한 **안전사고 예방 필요성**을 당부할 계획이다.

○ 특히, 출·퇴근 시간대 **전세버스 투입, 정규버스 증차** 등 **광역버스 운행확대**(총 482회)를 포함한 **광역버스 입석대책**의 **추진상황***을 점검할 예정으로,

* 10월 말 기준 : (전세버스) 135대 중 46대 완료(34%), (정규버스) 152대 중 56대 완료(37%)

○ 입석대책 추진 이후 **하루 승객**은 **34천명**, **출퇴근 승객**은 **17천명 증가**한 반면, **입석 승객**은 **2.4천명 감소**하고 있으나,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으므로 당초 계획대로 **연말까지 목표를 달성**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.

구분	하루 승객	출퇴근 시간대(06~09시, 17~22시)			
		승객	입석 승객	운행횟수	입석횟수
6월	518천명	198천명	7,194명	5,598회	1,011회
10월	552천명	215천명	4,802명	5,873회	461회
증감	**+34천명**(7%)	**+17천명**(9%)	**-2,392명**(△33%)	**+275회***(5%)	**-550회**(△54%)

○ 아울러, 대광위는 **대용량 여객 수송**(45→70석)으로 추가 증차없이 공급 확대로 **입석 해소가 가능한 2층 전기버스 공급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,**

- 출퇴근 시간대 승하차를 위해 **수십미터씩 대기**하는 **승객**을 **분산**시키기 위해 **좌석예약제, 중간배차** 등을 **확대**할 계획으로 **운송업계와 지자체** 등 관계기관의 **적극적인 참여와 협조**를 요청할 예정이다.

□ 한편,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**지자체, 운송업계**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공급확대를 위한 전세버스 투입 및 정규버스 증차와 관련하여 **전세버스 수급 및 운전원 확보에 애로**를 겪고 있어 **정부 차원의 지원**을 요청할 계획이다.

□ 이에 대하여 대광위는 전세버스 투입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노력과 함께 **증차지원 사업의 지원기준 상향** 등 **지원 확대방안**을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,

○ 혼잡도가 높은 노선의 탄력적인 증차 등 **안정적인 서비스 제공**이 가능하고, **운전기사 처우**가 **양호**한 **국토부 준공영제 지속 확대**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.

□ 대광위 **강희업 상임위원**은 모두발언을 통해 “이태원사고(10.29)를 계기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

○ **매일 50만명 이상**이 이용하는 **광역버스**는 **국민 안전을 최우선**에 두어야 하는 대상이며 **정부, 지자체, 운송업계는 무한책임**을 가져야 한다.” 라고 강조하면서,

○ “광역버스 사고는 대형사고로 바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매일같이 출퇴근을 위해 **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안전**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**혼잡 해소를 통한 안전 확보**에 **정부·지자체·운송업계 등은 공동으로 총력**을 기울여야 할 것” 이라고 당부할 예정이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광역버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계획**

□ 회의 개요

○ 일　시 : ‘22. 11. 7(월) 14:00～15:30

○ 장　소 : 철도특별사법경찰대 1층 회의실(위치:서울역 코레일건물)

○ 안　건 : 광역버스 입석 및 혼잡해소 등 안전체계 강화방안

□ 참석자 : 대광위, 지자체, 산하기관, 버스업계

○ **대광위**(3) : **본부장**(주재), 광역버스과장 등

○ **지자체**(3) : 서울 교통기획관, 경기 교통국장, 인천 교통건설국장

○ **산하기관**(1) :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장

○ **업　계**(5) : 버스운송조합 전무, KD운송그룹 사장, 선진그룹 회장, 경진여객운수 대표, 합자회사 경남여객 대표

□ 세부 일정

시　간	소요	내　　용	비　고
14:00～14:05	5′	• 인사말씀	
14:05～15:25	80′	• 광역버스 안전관리체계 추진 방안 - 대광위 발표(‘5) • 광역버스 안전관리 강화 방안 - 서울・경기・인천 발표(‘15) - 교통안전공단 발표(‘5) • 참석자 의견 청취(‘55)	
15:25～15:30	5′	• 마무리말씀	